



작년에 왔던  
각설이  
한옥마을에  
또왔슈~



노래하고

북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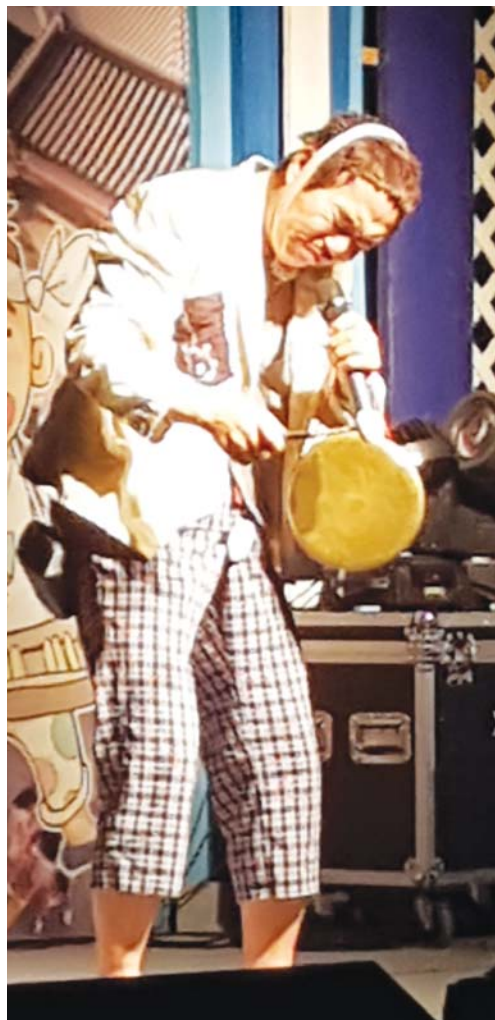
**제** 제5회 전국 품바 명인전이 지난 15일 오후 6시 30분에 열렸다. (사)전북문화진흥원이 주최한 이 행사는 김승수 전주시장,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 김승곤 전주매일 부회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시민, 관광객 2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봉성 대표는 대회사에서 "품바는 품앗이와 품앗 등에 쓰이는, 일하는데 드는 수고의 의미인 '품'에서 연유했다고 해 '사랑을 베풀 자만이 희망을 가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전통문화"라며 "전통문화의 도시인 전주 한옥마을 풍남문 광장에서 품바 명인들이 웃음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축사에서 "품바는 현실에서 오는 한과 울분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며 서민들의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우리의 전통문화"라며 "많은 분들과 함께 즐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회사와 축사를 하고 있는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왼쪽)과 김승수 전주시장.



열창하는 초대가수 조하연(왼쪽)과 해민.



/사진=김재훈 기자  
김영태 기자

품바 명인들의 무대 아래에 춤을 추고 있는 관람객들.



품바 명인들의 공연을 즐기 위해 모여든 관람객들.